

朴竹西 詩에 나타난 그리움의 世界

元 珠 淵 *

<目 次>

- | | |
|-----------------|--------------------------|
| I. 緒論 | 2. 竹西의 詩에 나타난
그리움의 世界 |
| II. 竹西의 生涯와 詩世界 | III. 結論 |
| 1. 竹西의 生涯 | |

<국문 초록>

조선시대에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하면서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질서에서 종법내 모든 질서는 남성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嫡庶의 차별이 법제화 되어 있어 가정 내에서 처와 첩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하여嫡子와庶子의 차별도 심화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학문이 자유롭지 못하고嫡庶의 차별이 있던 시대에 태어난朴竹西는庶女이며小室이기에 겪어야했던 슬픔과 외로움, 그리움 등을 많은 詩로 표현해 166편이나 되는 한시문을 지어 문집으로 남겼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일찍부터 시문을 지을 정도였지만庶女로 태어난 그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은 못했다. 出生과 出嫁에서 비롯된 그의 애상적 정조가 병약한 몸과 함께 평생 그의 작품 속에 스며들어 고적감과 그리움이 그의 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小室이기에 자주 대할 수 없었던 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마음의 위로가 돼주던三湖亭詩社의 금원에 대한 그리움이 유달리 나타나고, 특히 부모 없이 어릴 때 함께 놀며 자란 형제에 대한 그리움은 다른 여성 시인들이나

* 동해중학교 교사 / wjy2635@hanmail.net

같은 三湖亭詩社 회원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애뜻함은 읽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죽서의 詩에서 이 그리움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지역학으로서 한문학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서녀, 소실, 여류시인, 그리움, 님, 형제애

I. 緒論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접어들어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하면서, 성리학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가족 친족 구조의 측면에서는 부계 중심의 종법내 모든 질서가 남성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가족 내에서 딸들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어, 혼례제도는 親迎禮 즉 시집살이가 귀착되면서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出嫁外人, 三從之道, 女必從夫 등의 말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시대에는 가정 내에서 처와 첩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하여 적자와 서자의 차별도 심화되었다. 嫡庶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법제화되어 서자들은 문무 과거와 생원·진사시험 응시가 저지되었으며, 적자가 없는 경우에도 재산상속권의 전제가 되는 제사 상속권을 죽은 아버지의 동종의 조카(친조카뿐만 아니라 몇 촌 조카)에게 빼앗기고 울분과 통한의 세월을 보내는 수가 많게 되었다. 첩 자녀들은 당대에 멸시와 차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서얼이라 하여 팔시를 받아왔음은 그들의 역사기록인 『葵史』¹⁾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²⁾

1) 『葵史』: 역대 서얼의 史實과 관계되는 章奏를 모아 편집한 책. 2권 2책. 활자본. 1858년(철종9년)에 趙光祖와 李珣를 추앙하는 유림단체인 대구의 達西精舍에서 간행했다.

이렇듯 조선시대 여성이 차별받고, 嫡庶의 차별이 있던 시대에 여성이면서 庶女로 태어난 竹西가 166편이나 되는 한시문을 지어 문집으로 남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학구적 분위기의 양반가 庶女로 태어나 사대부가의 여성적 성향이 강하면서도 서녀이기 때문에 갖는 신분적 한계는 역으로 행동규제에 대한 부분적인 융통성을 누릴 수 있었기에 감상적 정서가 드러나는 여성적 성향도 겸비하고 있다.”³⁾고 김여주는 말하고 있다. 서녀이면서 소실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행동규제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 많은 시문을 남길 수는 있었지만, 평생 출생과 출가에서 비롯된 고적감과 그리움은 그의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 곳곳에 나타나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남다른 형제애, 친구 금원에 대한 그리움은 그 애뜻함이 더하기에 본고에 서는 이 그리움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인용하는 죽서의 詩 原文은 『竹西詩集』⁴⁾을 인용했으며 번역과 시에 따른 주석은 『조선여인의 노래』⁵⁾에 실려 있는 것을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II. 竹西의 生涯와 詩世界

1. 竹西의 生涯

朴竹西(1817?-1851?)⁶⁾는 원주 사람으로 錦川府院君 朴耑의 후예인 朴

-
- 2) 조선조 시대상황은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1.에서 참고하였음.
 - 3) 김여주,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p.276. 참조.
 - 4) 『竹西詩集』은 許米子, 『朝鮮朝女流詩文集』 제3권, 태학사, 1989.에 수록되어 있다.
 - 5) 최상의 감수, 허남옥·김풍기 공역, 『조선 여인의 노래』, 동인서원, 1998.
 - 6) 崔承洵, 「江原道 女性 漢詩文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창간호, 강원향토문

宗彦의 庶女이며, 號는 竹西識居, 半啞堂이다. 松湖 徐箕輔의 소실로 들어간 이후 길지 않은 생애를 병으로 고생하면서 漢詩를 평생의 낙으로 삼았다. 竹西의 생몰 년대는 뚜렷한 資料가 없어 正確하게는 알 수 없으나 斗山의 序文과 錦園의 「湖東西洛記」에서 抽出하여 보면 대충은 짐작할 수 있다. 錦園보다 젊다 하였으니 純祖 17年 이후에 태어났으며, 龍灣에서 돌아와 龍山 三湖亭에서 酬唱하던 해가 憲宗 丁未年(1847)이었으며 죽은 뒤 그의 詩를 편집하던 해가 辛亥年(1852)이니 이것으로 竹西의 生涯를 종잡아 보면 1817년 이후 1851년 사이의 사람으로 짐작이 된다. 竹西詩集은 죽서가 죽은 뒤 그의 시 166편을 수습하여 남편의 친척인 徐惇輔가 서문을 붙인 『竹西詩集』을 간행하였다.⁷⁾ 그 序文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여 곁에서 장난치고 놀면서 강습하는 이야기를 듣고, 암송함에 빠트리는 것이 없었다. 자라서는 바느질을 하는 틈틈이 小學, 經史 및 옛 작가들의 詩文을 더욱 탐독하였다.”⁸⁾고 하였으니 정식으로 글을 배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워낙 영특한데다 죽서 자신이 詩를 좋아하여 죽서의 한시 창작은 그의 시집 첫머리에 실려 있는 「十歲作」이라는 오언절구로 미루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그 때부터 이미 詩作을 생활화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친 곁에서 장난치고 놀면서 강습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과 그의 시에서 형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묻어나는 것으로 보아 庶女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차별받지 않고 자랐음을 알 수 있다. 서문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우의 급제를 축하하며 쓴 시의 내용으로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다. 庶女로 태어나 부모마저 일찍 여의고 성장하여 小室로 들어가 살게 되는

화연구회, 1996, p.35. 참조.

7) 장효현, 『徐有英 文學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8, p.92.에서는 두산 서문 보가 지은 것이 아니고 洪翰周가 代作하였다고 함.

8) 『竹西詩集』, “幼穎悟 嬉戲父側 聞講習語 暗誦無遺 長益耽書小學經史古作家 詩文 與刀尺針線”

죽서의 삶은 그의 시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시 전반에 걸쳐 孤寂感과 哀傷의 정조를 자아내게 한다.

2. 竹西의 詩에 나타난 그리움의 世界

죽서의 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리움은 죽서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애상적 정조, 여성성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그리움을 님, 벗, 형제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죽서 한시의 특징은 문집이 간행될 당시에 그 서문을 쓴 서돈보에 의해 이미 애상적 정조로 지적된 바 있다.⁹⁾ 그 후로 죽서의 시를 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애상적 정조를 언급한다. 이렇게 죽서 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孤寂感이나 끊임없는 그리움의 근원은 죽서가 庶女로 태어난 데다 小室로 들어간 데에서 비롯된다. 소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입장도 아니고 더욱이 자식마저 없었던 죽서에게 있어 자주 볼 수 없었던 남편의 존재는 그리움 그 자체였다. 조선시대 여인으로서 자식도 없이 소실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은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죽서의 시 전반에 孤寂感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죽서의 시 전반에 고적감이 흐르면서도 ‘恨’이라던가 ‘怨’이라던가 하는 시어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간에 금슬이 나쁘다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出生에서부터 비롯된 근원적인 고독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죽서시집』 전반부 대부분의 시는 님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이를 짐작케 한다. 태어나 자라온 친정을 떠나 낯선 곳에 출가

9) 徐惇輔, 『竹西詩集』, 「竹西詩集序」, “今其詩旨婉而節促 多纏綿悱惻之感”

한 여자가 느끼는 외로움은 익히 상상이 가려니와 더구나 님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상황이라면 그 외로움은 참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음의 시에는 그 고통의 극함이 잘 나타나 있다.

「寄婦(님에게 드림)」

鏡裏誰憐病已成	거울 속 이 몸 누가 가련히 여기리 병 이미 깊었거늘,
不須醫藥不須驚	약도 필요 없고 놀랄 필요도 없네.
他生若使君爲我	저승에서 님이 내가 된다면,
應識相思此夜情	그리워하는 이 밤의 정을 알리라.

죽서의 작품에 님과 함께 유난히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가 疾病인 것으로 보아 평생 병과 함께 살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병약한 그에게 님과의 이별과 그로 인해 가슴에 맺힌 그리움은 질병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억지로 잊으려 해도 잊혀 지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에 맺혀 병이 될 지경이지만 님은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다. “저승에서 님이 내가 된다면 그리워하는 이 밤의 정을 알리라.”는 표현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리움의 극치를 나타낸다. 다음의 시에도 이 같은 애타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有懷(감회에 젖어서)」

解道懷人自古難	님 생각 예로부터 어렵다고 하는데,
誰知此日我腸乾	누가 오늘 내 애간장 타는 줄 알리.
燈前應惱三分夢	등불 마주한 채 찢어진 꿈 괴로워하며,
衾裏那堪一半寒	이불속에서 외로워 떠는 이 몸 어찌하리.
空費心情身欲瘦	공연히 마음만 써 몸 수척해지고,
強裁書字意難寬	억지로 글을 쓰려하니 마음도 편하게 먹지 못하네.
並刀若得強愁割	만약 칼 얻어 억지로 근심 베어버릴 수 있다면,
何必尋醫問大丸	하필 의사 찾아 왜 약을 물으리.

병든 몸이 밤이 되면 그리움은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님 생각에 애간장을 태우며 이불 속에서 외로움에 떨고, 그 애타는 마음에 몸은 더욱 수척해지지만 칼로 베어 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그 애틍는 마음을 竹西는 句句節節 시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小室의 처지에서 그 님에 대한 애틍는 그리움마저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또한 시로 읊어내고 있다.

「西衙獨居(서쪽 관아에 홀로 머물며)

春盡已驚黃鳥稀	봄 다해 감작 놀라서 피꼬리도 드문데,
離懷空復掩荊扉	떠난 님 생각하다 공연히 사립문만 다시 닫네.
日哦幾處題松樹	일아정(日哦亭) 곳곳에서 소나무 읊조리니,
舞鶴何年過羽衣	무학산(無鶴山)엔 어느 때 신선이 지나갈꼬?
欲忘愁懷仍自醉	근심에 젖은 마음 술로 달래며,
怕傷心事未言歸	마음 상황까 두려워 돌아올 기약 묻지 못했네.
杏花西畔曾相別	살구꽃 핀 서쪽 언덕에서 일찍이 이별하고,
對此那堪乳鷺飛	지금 마주하니 어찌 어린 제비 나는 봄 정경 감당하리오.

떠나는 님에게 마음 상황까 두려워 언제 또 올 것인지 차마 묻지도 못하고 술로 마음 달래보려 하지만 어린 제비 날아드는 아름다운 봄날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애타게 님을 그리면서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사립문 닫고 홀로 속만 태우고 있다.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면서도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만 표현되어있고 님과의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아 부부간에 애정표현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이라면 분명 즐거운 일도 있을 법 하건만 시 어느 곳에도 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만남의 기쁨을 표현한 곳도 거의 없다. 小室로서 자주 대할 수 없는 님에 대한 積極的 意志의 표현인 閨恨이나 閨怨보다는, 消極的이요, 被動的인 ‘기다림’에 머물고 있

다. 金錦園¹⁰⁾과는 同鄕에 同年輩로서 평생을 가까이 지냈으나, 錦園의 적극적인 성격과는 對照的으로 柔弱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詩를 통해서 알 수 있다.

「寄呈(그대에게)」

乍逢旋別後	만난 듯 이별한 뒤에,
脈脈只驚魂	계속해서 놀라기만 하는 이 마음.
歸雁音難定	돌아가는 기러기 소리에 마음 산란한데,
寒燈燼更繁	차가운 등불 다 탕다가 또 다시 타오릅니다.
莫言多病苦	병 많아 괴롭다고 말하지 마오,
却恨滿心煩	도리어 마음 가득 번뇌 한스럽습니다.
月白梅香夜	달 밝고 매화 향기 날리는 밤,
那堪獨掩門	홀로 문 닫고 있는 것 어찌 견디겠습니까.

만나자 곧 이별하고 나서 육체적인 疾病보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괴롭다고 말하는 죽서. 소실이기에 겪어야하는 짧은 만남과 죽서의 유난히 소극적이고 애상적인 태도가 그의 시 곳곳에서 표현되어 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點綴되고 있다.

2) 三湖亭詩社의 벗에 대한 그리움

금원은 죽서보다 몇 살 위이며 같은 고향에서 자랐고 죽서와 같이 庶女出身이며 小室로 있었던 것 같다. 남편인 侍郎 金德熙가 의주부사로 나갔다가 서울로 돌아와서는 서울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 錦園이 거처한 곳이 용산에 있는 三湖亭이다. 이 三湖亭이 당대 뛰어난 여성 시인들

10) 金錦園(1817?-1847?) : 원주 출생. 14세 때 남장을 하고 금강산을 여행하고 기행시문을 남긴 바 있다. 규당학사(奎堂學士) 김덕희(金德熙)의 소실이 된 후 서울 용산에 있는 삼호정(三湖亭)에서 박죽서(朴竹西), 김운초(金雲楚), 김경춘(金鏡春), 경산(瓊山) 등과 함께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지낸다. (崔承洵, 앞의 논문. 참조.)

이 모여 詩文을 주고받는 중심지가 되는데 竹西와 錦園 외에 花史 李尙書의 小室인 瓊山과 연천 김상서의 소실인 雲楚, 雲楚의 아우인 주천 홍태수의 소실 鏡春 등이 詩會를 자주 갖게 된다.¹¹⁾ 그들은 신분이 모두 기녀 혹은 서녀 출신의 소실이었으므로 동류의식을 가지고 그 친분을 돈독히 나누었던 것 같다. 그 중 錦園은 앞에서 밝혔듯이 같은 원주 출신에다 서울에서도 이웃에 살았으므로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각별하였던 듯하다. 같은 삼호정시사 회원들 중에서도 유독 금원에게 보내는 시가 여러 편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秋日寄錦園(가을 금원에게)」

一陣哀鴻向晚多	저녁 무렵 구슬피 울며 떼 지어 나는 기러기,
江雲嶺斷腸何	강 구름과 고개 마루 나무 애간장 끊는 건 어쩔 일.
相思淚灑東流水	서로 생각하며 동으로 흐르는 물에 눈물 뿌리니,
去作三湖別後波	지난 해 삼호정과 이별하고 물결만 보겠네.

「再疊(다시 금원에게)」

月明無限此宵多	오늘 저녁, 달은 끝없이 밝기만 한데,
兩地深懷較若何	양쪽의 깊은 회포 누가 더 클까.
欲借星槎來夢裏	은하수뗏목 빌려 꿈속으로 오고자 하니,
莫教河漢動新波	은하수로 하여금 물결 일으키게 하지 마오.

三湖亭詩社를 통해 交友하던 죽서가 남편의 出宰로 추정되는 사정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 살게 된다. 고적한 죽서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11) “有時吟哦 從而唱酬者四人 一曰雲蕉 成川人淵泉金尙書小室也 才華超倫 詩以大鳴 源源來訪 或留連信宿 一曰瓊山 文化人花史李尙書小室也 多聞博識 上於吟詠 適因隣居相尋 一曰竹西 同鄉人松湖徐太守小室也 才氣英慧 聞一知十 文慕韓蘇 詩亦奇古 一即吾弟鏡春 泉洪太守小室也 聰慧端一 博通經史 詩詞亦不多讓於諸人 相與從遊 而錦軸盈床 珠唾滿架 有時朗讀 琅琅如擲金碎玉” (金錦園, 『湖東西洛記』. 참조.)

금원과의 이별은 죽서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을 것이다. 친구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이 사무쳐 애간장이 끊어지고 꿈속에서라도 만나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이 두 편의 시에 잘 나타나고 있다.

「謾吟(생각나는 대로 읊조리다)」

午睡濛濃樹影移	낮잠에 취해 몽롱한데 나무 그림자 옮겨가니,
病餘人事每依遲	병든 후 사람일 매양 더디기만 하다.
謾愁風送殘花處	아득한 근심 바람에 실려 쇠잔한 꽃으로 가고,
偏喜雨添芳草時	기뻐하는 마음 비에 섞여 아름다운 풀에 떨어진다.
緣底樓頭懷遠友	머리 숙여 누각 모퉁이에서 멀리 떠난 벗 생각하며,
無聊枕上覓佳詩	무료하게 베갯머리에서 좋은 시구 찾는다.
浮生縱使百年壽	허망한 인생 백년수를 누릴 수 있다 해도,
奈此東流無返期	동으로 흐르는 물 돌아올 기약 없으니 어찌하리.

위 시는 錦園에게 쓴 시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앞서 錦園에게 보내는 시에 ‘東流水’라는 표현이 나오고 위 시에도 ‘東流’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금원을 두고 썼을 것으로 짐작케 한다. 또한 다음 시의 내용에도 ‘知己’라는 표현을 쓰며 꿈속에서 친구를 만난 기쁨이 지극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가장 가까이 지내던 錦園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것으로 보인다.

「冬夜(겨울밤)」

離離爐篆宿香痕	홀어지는 향로 연기에 묵은 향기 흔적 남았는데,
獨臥綃衾不肯溫	명주 이불에 홀로 누우니 따뜻해지질 않네.
燭始生花應結子 ¹²⁾	촛불은 처음에는 꽃을 만들더니 응당 불똥 만들고,
壺常開口竟無言	호로병은 항상 입 열려있으나 끝내 말이 없다.

12) 촛시생화응결자(燭始生花應結子) : 촛불이 처음 타오를 때에는 그것이 마치 불꽃 같지만, 모두 타버리고 나면 심지에 까만 불똥만 남는 것을 말한다. 즉 촛불이 다 타도록 잠을 못 이루는 것을 묘사한 부분임.

喜逢知己情何極 기쁘게 친구 만나니 그 정 어찌 이리 지극한가,
 思到前塵¹³⁾恨更存 생각이 옛 자취에 이르니 한은 더욱 남아있다.
 忽有寒聲驚遠夢 홀연 차가운 소리 있어 아스라한 꿈 놀라는데,
 數行鴻雁月中翻 줄진 기러기만 달빛 속에 높이 난다.

「連見錦園書(금원의 편지를 이어서 보고)」

故人慰我再三書 벗이 날 위로하러 두세 번 편지하니,
 書不成行意有餘 한 줄 읽기도 전에 그대 뜻 넘쳐흐르네.
 薄酒猶賢當取樂 거친 술 어진이 같아 취해서 즐겨야지,
 衰花雖在易歸虛 시든 꽃 있긴 해도 쉽게 없어지고 말리니.
 自從身病無相問 몸에 병이 나자 서로 안부 묻는 일 없으나,
 豈是人情好獨居 어찌 사람의 마음 홀로 지내는 것 좋아하리.
 慙愧諸君勤問訊 여러 벗들 부지런히 안부 물어주는 것 부끄러우니,
 離羣絕俗計還疎 무리 떠나 속세 끊는 일, 그 생각 오히려 소홀하도다.

이처럼 부모형제와 떨어진 채 남편과의 이별도 잦아 홀로 지내는 날이 많은 죽서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친구 금원의 존재는 그 어느 것보다 견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꿈속에서, 혹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님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는 기쁨, 슬픔, 고민 등을 누구보다 가장 편하게 터놓고 의논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친구라면 錦園의 존재는 ‘님’ 못지않게 죽서에게는 절실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 느낄 수 있다.

3) 형제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出嫁 이후 자주 대할 수 없는 형제에 대한 그리움은 당연한 것이겠지 만 시에 나타난 죽서의 형제애는 더욱 남달라 보인다. 「竹西詩集序」에

13) 전진(前塵) : 원래는 불교용어로서, 망령되고 거짓된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모습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글자 뜻 그대로 속세에서의 옛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하면 “어려서 매우 영리하고 슬기로워서 父親 곁에서 즐겁게 놀면서 강습하는 말을 듣고 암송함에 빠뜨리는 것이 없었다.”¹⁴⁾고 한 것으로 보아 庶女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받지는 않았으며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과 같이 놀고 공부하며 敦篤한 우애를 쌓아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김여주도 그의 논문¹⁵⁾에서 “庶女라서 받는 신분적 차별을 크게 느끼지 않고 차별 없는 가정적 분위기에서 성장하면서 우애를 다져서인지 특히 형제간 우애의 정이 간절하게 드러나는 점은 詩社를 함께 했던 여성 친구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시 전반에 그리움이 간절하게 토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 시에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奉呈舍兄(오빠에게 보냄)」

同氣連枝是弟兄 같은 기운에 연결한 가지가 형제이거늘,
 鶴鶴¹⁶⁾歸夢幾迴驚 할미새 꿈에 드니 몇 번이나 놀랐던가.
 一別三年形已改 헤어진 지 삼년에 모습 이미 변하여,
 相逢只可辨音聲 서로 만나면 다만 목소리로 구별할 뿐이겠지.

同氣連枝란 표현을 썼다는 것은 죽서가 다른 형제들과 별다른 차별의식을 느끼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하는데 다음의 동생과 삼촌의 과거 합격을 축하하는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다.

「奉呈賀季氏及第(아우의 과거급제를 축하해 드림)」

千枝萬葉荊花樹 천 가지 수없는 잎 가지 꽃 나무,

14) 『竹西詩集』, “幼穎悟 嬉戲父側 聞講習語 暗誦無遺”

15) 김여주,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 III -朴竹西의 漢詩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p.376.

16) 鶴鶴(적령) : 할미새. 걸어 다닐 때 항상 꼬지를 아래 위로 흔들며 화급(火急)한 일을 고하는 것 같으므로, 위급함의 비유로 쓰임.

朝日曲江影更清	아침 해 흰 강에 비쳐 그림자 더욱 맑다.
鵬路搏飛四海動	창창한 앞날 향해 박차고 나니 천하가 진동하고,
龍門躡躍一家榮	용문에 뛰어오르니 온 집안이 영화롭다.
歡心應倍瞻依地	우리러 존경하다 보니 기뻐하는 마음 더욱 큰데,
慶事還添孤露情	부모 없이 자란 마음에 경사 또 보태졌다.
願繼肅公同貴壽	씩씩한 기상 이어받아 부귀와 장수 함께 하고,
螽斯詵詵歲俱亨	자손 번창하여 해마다 두루 형통하시라.

아우의 급제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며 앞날을 축복하는 죽서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서돈보의 서문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함에 베를 짜서 가난하나마 공양을 넉넉히 하였다.”¹⁷⁾고 하였으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음을 알겠거니와 “부모 없이 자란 마음에 경사 또 보태졌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동생이 어렸을 때 또는 죽서가 어렸을 때 어머니마저도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남다른 형제애를 갖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형제에 대한 그리움은 시에 나타나면서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가 없다는 것은 형제가 부모를 대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부모를 일찍 여윈 동생을 바라보는 누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애뜻한 법인데 그런 동생의 과거급제는 더없는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다음 시에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형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읽는 이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懷伯兄(오빠를 생각하며)」

寒梅落盡篆香殘	찬 매화 다 떨어지고 은은하게 향기만 남아 있는데,
歲暮離愁惱百端	연말 이별의 수심으로 마음 산란해진다.
意切高山行不遠	고산에 뜻 간절하나 멀리 가지 못하고,
情疎尺地夢猶難	지척의 거리에 정이 성그니 꿈꾸기도 어렵다.
謾因來客依依問	혹시나 소식 알까 나그네잡고 간절히 묻다가,

17) 徐惇輔, 『竹西詩集』, 「竹西詩集序」, “早孤養母孝組紆以瞻菽水”

却把前書細細看 지난 편지 손에 쥐고 자세히 본다.
 暮雪梁園誰更念 저녁 눈 내린 동산 누가 다시 생각하리,
 回頭天末倚闌干 하늘가로 머리 돌려 난간에 기대있다.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며 지낸 죽서에게 형제와의 이별은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애뜻한 형제를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죽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편에 소식을 묻거나 지난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하는 일 뿐 아무것도 없다.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난간에 기대 채 그리는 마음 달래는 죽서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憶兄(오빠를 그리며)」

一簾斜日在西林 주림에 비긴 해는 서쪽 숲에 있는데,
 欲散離愁步綠陰 이별의 근심 흩어버리려고 녹음 우거진 숲 거닌다.
 塘草依依空有夢 연못가 풀은 무성하여 헛되이 꿈만 꾸고,
 荊花杳杳自傷心 모형꽃은 어둑하여 스스로 마음 상하네.
 去時白雪猶殘臘 떠나가실 때 흰 눈 아직 남아있는 설달이었는데,
 今日黃鸝已好音 오늘은 찹꼬리가 하마 예쁜 소리로 우는구나.
 魚雁江天無信息 강의 물고기, 하늘의 기러기 전하는 소식 없어,
 登樓遙望悵難禁 누각에 올라 아득히 바라보니 쓸쓸한 마음 금하기 어렵다.

설달 겨울에 헤어진 형제를 봄이 되어 찹꼬리가 우는 봄이 되었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물고기나 기러기 편에라도 소식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저 높은 누각에 올라 고향 쪽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함께 의지하며 자란 죽서의 형제에는 남이나 벗에 대한 그리움과는 또 다른 애뜻한 마음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형제에는 어린 시절 같이 놀며 자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한 것도 여러 편 보이고 있어 다음에 그 몇 편을 옮겨본다.

「暮春書懷(늦은 봄 그리운 심정을 쓰다)」

落花天氣似新秋	꽃 진 날씨 초가을 같고,
夜靜銀河澹欲流	밤 고요하니 은하수 맑게 흐를 듯하다.
却恨此身不如鴈	이 몸 기러기만도 못해,
年年不得到原州	해마다 원주 땅 가지 못한다.

「思故鄉(고향을 그리며)」

獨倚欄干恨更長	난간에 홀로 기대니 시름 더욱 끝없는데,
北風吹雪夜昏黃	북풍에 눈 날리며 날이 저문다.
數聲鴻雁遠雲外	멀리 구름 밖에서 들려오는 몇 마디 기러기 소리,
東望故園天一方	동쪽 바라보니 고향은 하늘 저쪽.

「思故鄉(고향을 그리며)」

一望鄉山隔九河	고향 산 바라보니 강물로 막혀,
年年悵悵是秋過	해마다 쓸쓸히 가을 보낸다.
月窓梧影看來瘦	창에 어린 오동나무 그림자 빈가지로 서 있는데,
露砌虫聲聽似歌	이슬내린 섬들의 벌레소리 노래처럼 들린다.
倘使筆頭能盡淚	붓으로 눈물 그릴 수 있다면,
分明紙面已生波	분명히 종이위에 물결이 일었을 것을.
此身此恨相隨在	이 몸 있어 근심도 함께 따르니,
無計推排奈若何	밀쳐낼 계책 없어 어쩔 수 없네.

오랜 질병과 고독은 오히려 자연과 사물에 대해 섬세함으로 다가가게 한다. 이러한 섬세한 관찰과 그것에서 받는 느낌이 죽서로 하여금 시를 쓸 수 있게 하였고 홀로 지내는 죽서가 느끼는 고적감은 그 누구보다 컸음을 그의 시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런 죽서에게 현실에서 받는 고적감은 곧 어린 시절 함께 했던 고향과 형제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되어 그의 시에 나타나고 있다. 누구보다 정이 많았던 죽서가 가장 그리운 이

들과 떨어져 지내야했던 고적한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가슴으로 느껴지게 한다.

Ⅲ. 結論

지금까지 박죽서 시에 나타난 그리움을 님, 벗, 형제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출생에서 비롯된 고적감의 시작은 질병과 반복된 이별을 겪으며 죽서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소실이기에 겪어야하는 짧은 만남과 죽서의 유난히 소극적이고 애상적인 태도가 그의 시 곳곳에서 표현되어 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點綴되고 있다.

이런 죽서에게 같은 원주 출신에다 처지도 같은 소실이었던 금원과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각별하여 같은 삼호정시사 회원들 중에서도 유독 금원에게 보내는 시가 여러 편 보이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친구 금원의 존재가 그 어느 것보다 견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님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는 기쁨, 슬픔, 고민 등을 누구보다 가장 편하게 터놓고 의논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친구라면 錦園의 존재는 ‘님’ 못지않게 죽서에게는 절실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 느낄 수 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며 지낸 죽서에게 형제와의 이별은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현실에서 받는 고적감은 곧 어린 시절 함께 했던 고향과 형제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되어 그의 시에 나타나고 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집중 이수제나 창의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창의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때에 죽서의 신분과 연관 지어 남녀평등 혹은 현실을 극복하는 자세 등 인성교육에 맞추어 접목시킨다면 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또 같은 고장 출신 인물들의 이야기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原州가 낳은 뛰어난 여성시인에 대한 부단한 연구는 지역학으로서 우리 한문학이 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도 널리 인식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參考 文獻>

- 許米子, 『朝鮮朝女流詩文全集』, 太學社, 1989.
- 金寬植, 『朝鮮朝 江原 女性 漢詩文 研究』,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金呂珠,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 III -朴竹西의 漢詩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 ,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김지용, 『삼호정시단의 특성과 작품』, 『아시아여성연구』 16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77.
- 金豐起, 『강원 한시의 이해-박죽서의 삶과 시세계』, 집문당, 2006.
- 장효현, 『徐有英 文學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8.
- 曹斗鉉, 『한국 女流 漢詩選』, 태학당, 1994.
- 崔相翼外, 『江原女性詩文集』, 강원문화연구소, 1998.
- 崔相翼 監修, 許南郁·金豐起 共譯, 『조선여인의 노래』, 동인서원, 1998.
- 崔承洵, 『江原道 女性 漢詩文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창간호,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6.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1.

Abstract

*The World of Loneliness in Park Jook Seo's Poetry / Won Ju Yeon**

As the social orders were based on Neo-Confucianism which emphasized a patriarchal system in the Joseon era, all the clan rules were organized in an androcentric way. Because of the comparatively women's lower position and the legislation of the discrimination of illegitimate children, the different domestic positions between wives and concubines were clearly defined, which led to the unfair treatment toward illegitimate children. Park Jook-Seo, an illegitimate daughter, was born in such era lacking women's academic freedom and existing the severe discriminative treatment against illegitimate children, but she left no less than 166 poems in her collection of works, expressing her emotion of loneliness and sorrow that stemmed from her birth and martial life.

She was so talented that she could write Chinese poems from her early childhood, but her life was not smooth because of her position as an illegitimate daughter. That is why her loneliness and desire was well depicted in her most works with her sorrow and poor health. In particular, Jook-Seo's affection for her friend 'Kuem Won' who joined the same "Sam Ho Jeong" Poetry Club was emphasized in her works and so was the feeling of longing for her husband. Furthermore, a sense of missing her siblings she had spent her childhood being together with is rarely found in other female poets' works and the works of the other members of the "Sam Ho Jeong" Poetry Club. Such her pathetic emotion depicted in her works can touch the heartstrings of the readers.

* Donghae Middle School, Teacher / wjy2635@hanmail.net

This thesis will focus on “Emotion of loneliness and sorrow” in Jook-Seo’s poems and find out the roles of Chinese literature in our local societies.

【Key words】 an illegitimate daughter, a concubine, a female poet, an emotion of loneliness, a loved one, affection for siblings

투고일 : 5월 7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